

청년기 이전 유형별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문 원 희

부산대학교 / 학생

서 수 균[†]

부산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청년기 이전 유형별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년기 이전 유형별 학대 경험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대학생 총 449 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문을 실시하고, spss 28.0, amos 26.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완전 매개하였다. 둘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인 정서적 학대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완전 순차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청년기 이전 유형별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

* 본 연구는 문원희(2022)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Tel: 051-510-2125, E-mail: sgseo@pusan.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학생 시기는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진입한 초기로서 성인으로서의 내적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대학입학을 위한 수험 준비 중심의 중, 고등학교 기간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에는 청소년기보다 맺게 되는 양적인 대인관계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초기 성인기의 이러한 대인관계의 질 또한 미성년기의 학교 또래 관계라던가,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과 중요성을 가진다.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낯선 수많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친밀감의 획득 능력이다.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과 행동을 할 줄 아는 대인관계 능력 내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성인 초기 문제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의 문제가 대두된다(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지나치게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면서, 주변인들과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한다(Rubin et al., 2009).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왕따, 따돌림 같은 타인들에 의한 고립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위축은 외로움, 우울, 사회적 불안, 공포, 낮은 자존감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 중의 하나이다(Rubin & Coplan, 2007). 사회적 위축은

한 번 형성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및 이로 인한 발달 부적응이 성인기의 사회적 위축 및 대인관계와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Keenan et al., 1998; 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시간의 대부분을 홀로 보내며, 그들의 비전형적인 행동들로 인해 주변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발달 기회들로부터 소외된다(이봉주 등, 2014). 또한 사회적 위축은 낮은 학업 성취, 등교 회피, 선생님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기의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로는 동료 거부나 동료 희생(victimization) 같은 대인관계 어려움, 외로움, 빈약한 사회적 자기개념, 낮은 우정의 질, 결혼이나 직업적 관계 형성의 지연 등이 문제될 수 있다(Katz et al., 2011). 또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토론과 협상, 타협의 기술과 사회 정보 처리와 같은 사회 인지 기술을 배우지 못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료들과의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Rubin & Coplan, 2007).

사회적 위축은 학교 적응 이외에도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의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김금순, 김은미, 2015).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문제이다. 현재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초기 성

인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아동기 외상 유형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박선미, 이주영, 2021). 외상 중 신체적 학대는 대인관계에서 공격성 등 행동화 경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철회 현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이 겪었던 외상을 마주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회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인관계 문제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미, 이주영, 2021). 또한 아동기 정서학대 피해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연, 2018). 아동 학대는 피학대 아동들에게 심리적 내상을 입혀 심각한 수준의 자아존중감 저하와 공격성 형성을 야기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과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므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이다(하지연, 2018). 신체적 학대가 초래하는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위축 양상의 사회적 위축 요인 및 두통, 구토, 천식, 복통 등 신체증상 요인에서 신체 학대 집단과 비학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안동현 등, 1992). 아울러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 방임보다 공격성과 대인불안을 초래하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사회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된다(신혜영, 최혜림, 2003). 방임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신체 학대가 시간 제한적인데 비해, 방임은 신체 학대보다 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한인영, 2000). 높은 수준의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대인관계와 정서조절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riere & Runtz, 1988). 부모와의 관계에서 방임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맺는 사회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방임의 후유증 또한 다른 유형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은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방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증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은 고립, 불화, 불안정, 부적질성의 4가지 대인관계 영역에서 손상을 보이는데,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 친척, 친구들과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오현숙, 2003). 또한 대인관계를 불신하고 공포감을 갖게 되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친밀감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현숙, 2003). 이에 따라 청년기 이전 성학대 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의 원인은 불안, 우울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가족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가족 환경 요인으로서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학대나 방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대인관계로서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표상이 되고(Bretherton et al., 1990),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 아동은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학대

를 당할 경우 정서적·신체적 발달의 전 영역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정익중 등, 2006; Egeland et al., 1993). 또한 학대가 지속될수록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부끄러움, 자괴감을 갖게 되어 자기존중감 결여와 함께 대인관계에서 위축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 청소년의 부모 학대 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유현주, 2014).

성장기에 경험한 학대의 후유증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발달상 중요 시기에 학대나 방임 등의 강력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신경 화학적 자극으로 인해 뇌의 조직과 기능의 문제가 유발된다. 학대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뇌의 조직과 기능은 더욱 혼란되고, 이런 신경계 반응의 패턴으로 인해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도 부적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성인기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어려움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wis, 1992). 또한 학대나 외상 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지, 정서, 기억을 구성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하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형성되게 되는데, 성인이 된 후 비슷한 생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도식이 활성화되면서 분노, 우울, 수치심, 공포 등과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Young et al., 2003). 아울러 인간은 학대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기에 심리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한 피해자들은 자기발달에서 중요한 자기지각, 행위자로서의 자기감, 자기지속성, 자기통합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ter, 1999). 이러한 자기체계의 손상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비난에 빠지게 하여 수치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정서를 경험하게끔 만들기도 한다(안현의 등, 2009).

아동기 학대의 후유증 중 특히 사회적 위축 같은 대인관계 문제의 어려움은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한다.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icchetti, 2006). 중요한 타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타인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Kolk et al.,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년기 이전의 학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을 불안해하며 거부와 관련된 정보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 처리 경향성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거부민감성이 증가하여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쉽게 생각하고, 과잉 반응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등, 2000).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하수홍, 장문선, 2013).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높

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을 보인다(Impett et al., 2005).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자기 또는 타인을 비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서 철수하는 현상을 보인다(Zimmer-Gembeck et al., 201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류혜라, 박기환, 2014), 이것은 결국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피하게 만들어 사회적 위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대 경험자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쉽게 압도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힘들며,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해, 약물남용, 식이장애 등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xenberg et al., 2001).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주된 부적응 증상으로 정서조절곤란 또는 정서조절 장애를 들고 있다(안현의, 2007; Christ et al., 2019). 성장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개인이 성장한 후에도 정신병리, 대인관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외상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정서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반응 패턴을 형성하고, 이것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김은정, 김진숙, 2020).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양육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은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상징적 활동(그림, 놀이 등)에서 자신이 학대받은 상처를 반복해서 표현하며, 자신에게 닥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아주 위축되거

나, 아주 공격적인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안동현, 2002). 이처럼 정서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위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 능력은 정서의 수용성, 정서에 대한 이해와 자각,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경우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고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 정서조절전략 사용 등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서조절곤란이라 한다(Gratz & Roemer, 2004).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호 작용 속에서 상처, 분노감 같이 부정적 감정이나 부적합한 행동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최나운, 이영호, 2018). 이는 아동기 학대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서라도 애착을 유지하려고 집착하는 병리적 애착을 일으키기 쉽다는 연구와 관련된다(Herman, 2015). 밀폐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저항 대신 복종을 선택하고, 다시 피해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쉽다(최나운, 이영호, 2018). 아동기 학대 경험에 기인한 애착 외상이 자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적응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조현주, 2021). 반복적인 정서조절능력의 부족 또는 실패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위축, 철회나 억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거부민감성은 타인의 반응만 중요시하며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정서조절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최은선, 권해수, 2013).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아동에 대한 학대가 거부민감성을 높여서 정서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하은, 조영아, 2017). 아동기 학대 등 거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의 사소하고 중립적인 반응에 대해 예기불안, 예기분노, 예기우울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서에서 한걸음 물러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강하은, 조영아,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기 외상 척도(CTQ)는 18세 이전의 학대 경험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세 이전의 학대 경험을 물었을 경우 응답자에 따라 아동기(13세 이전) 또는 청소년기(13세-18세)의 학대 경험을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기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13세 이전의 학대 경험처럼 아주 어릴 때 학대 경험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18세 이전의 학대를 측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동기 학대’라는 표현 대신 ‘청소년기 이전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청소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경험한 학대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청소년기 이전 학대를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의 5개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검증하기로 한다. 신체적 학대는 외부에서 관찰이 쉬워 가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신체 손상 행위를 의미한다(권세경, 이은정, 2016). 정서적 학대는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 경멸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비신체적인 형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Steele, 1980). 방임은 양육자가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Polansky, 1987). 성학대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추행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Sgroi, 1982). 청소년기 이전 학대는 중복 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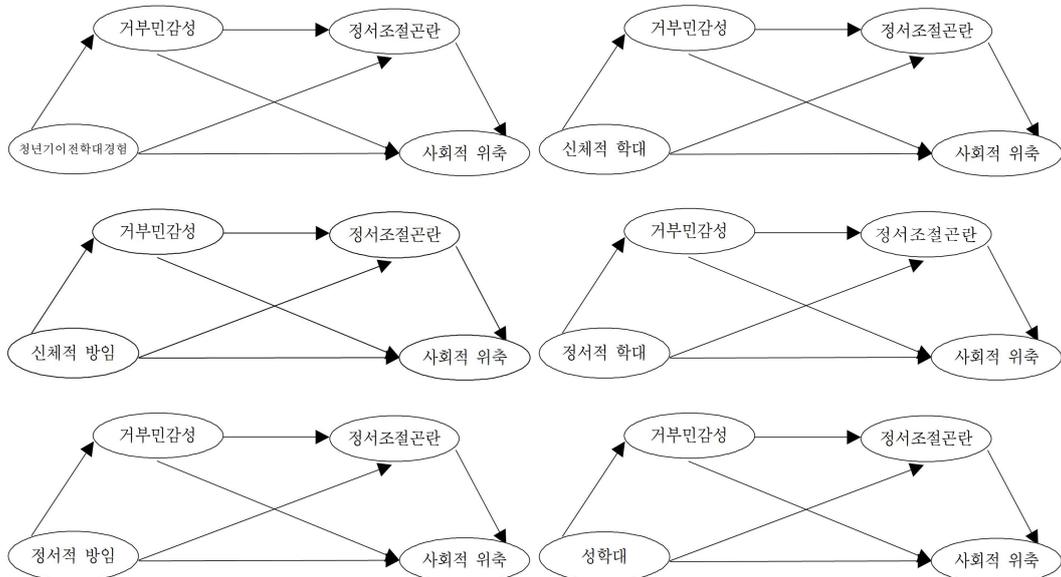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5개 하위 유형은 각기 개념상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학대의 하위 유형별로 매개효과 등이 다르게 나온다면 개입의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정서조절곤란은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은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순차 매개할 것이다. 넷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면서, 동시에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의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서 검증하기로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49명(대학교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 sona-system 259

명, 네이버 포털 ‘찌질한 임상심리사 모’ 카페 게시판 190명)이 설문을 완료하였고 설문의 보상으로 3,000원권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응답 결과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장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참여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사전에 함께 고지하였다. 설문의 대상인 대학생이 맞는지 여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 관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22세였다. 남성이 122명(27.2%)이고 여성이 327명(72.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72명(38.3%), 2학년이 118명(26.3%), 3학년이 91명(20.3%), 4학년 이상이 68명(15.1%)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유재학 등(2009)이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Bernstein & Fink, 1998)를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신체적 학대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약국이나 병원에만 적이 있다”, “회초리, 벨트, 나무 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었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했고, 정서적 학대는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라고 놀렸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의 문항으로, 성학대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성적인 잡지, 비디오를 보게 하였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방임은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은 술에 취해 있어서 나를 돌봐 줄 수 없었다” 등의 문항을, 정서적 방임은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역채점 문항)”,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역채점 문항)” 등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위 유재학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82(신체적 학대), .51(신체적 방임), .80(정서적 학대), .89(정서적 방임), .79(성학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신체적 학대는 .84, 신체적 방임은 .77, 정서적 학대는 .82, 정서적 방임은 .88, 성학대는 .91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복동(2000)이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Downey & Feldman, 1996)를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 생활에서 부모, 친구 등 소중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하는 다수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마다 ‘거부불안’ 과 ‘수용기대’를 예상하는 정도를 답하도록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부불안’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여 느끼는 불안한 정도를 의미하며, ‘수용기

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상하여 느끼는 기대의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을 예로 들면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는 문항의 경우,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항목에 1점에서 6점 중 값을 선택하고,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항목에 1점에서 6점 중 값을 선택하여 이것을 역채점한 값을 곱하여 모두 합한 뒤 상황의 가짓수인 18로 나누어 평균화한 값을 구하는 Bandura(1986)의 기대 값 모델(expectancy-value mode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점수는 1점에서 36점까지 산출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제작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정서반응 비수용성,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충동통제곤란, 정서적 명료성 부족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35문항이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문항들의 총합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며, 정서반

응 비수용성은 .89,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은 .85,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은 .88,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은 .78, 충동통제 곤란은 .88,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8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등(2004)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SPS(Child Social Preference Scale)를 Nelson(2013)이 대학생용으로 개정한 성인 진입기 사회적 선호 척도(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 EASP)를 사용하였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한 연구가 있다(김원희 등, 2016). 본 척도는 수줍음, 비사고, 회피, 사회적 고립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며, 윤미설, 이동형(2017)이 수줍음(6문항)과 비사고(4문항)를 번안하고, 하지연(2018)이 회피(6문항)와 사회적 고립(4문항)을 번안하여 연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고,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elson(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수줍음 .91, 비사고 .62, 회피 .82, 사회적 고립 .89로 나타났다. 하지연(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수줍음 .89, 비사고 .78, 회피 .83, 사회적 고립 .89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수줍음 .87, 비사고 .70, 회피 .83, 사회적 고립 .88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28.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측정지표들이 해당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청년기 이전 학대, 사회적 위축,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 결과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r=.46, p<.001$), 정서조절곤란($r=.46, p<.001$), 사회적 위축($r=.26,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부민감성은 정서조절곤란($r=.67, p<.001$), 사회적 위축($r=.50,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위축($r=.4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요 변인들 간에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심할수록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심할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고, 정서조절곤란이 심할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자료의 정규성 충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바, 그 기준인 왜도와 첨도의 절

표 1. 상관 및 기술통계 (N=449)

변인	1	1-1	1-2	1-3	1-4	1-5	2	3	4
1. 학대 경험 총점									
1-1. 신체적 학대	.83***								
1-2. 신체적 방임	.79***	.53***							
1-3. 정서적 학대	.87***	.74***	.60***						
1-4. 정서적 방임	.77***	.49***	.58***	.61***					
1-5. 성학대	.77***	.60***	.61***	.59***	.37***				
2. 거부민감성	.46***	.29***	.51***	.44***	.49***	.22***			
3. 정서조절곤란	.46***	.29***	.43***	.45***	.46***	.27***	.67***		
4. 사회적 위축	.26***	.18***	.21***	.29***	.29***	.09	.50***	.49***	
평균	43.72	8.80	9.79	8.99	10.53	6.79	9.18	90.28	59.50
(표준편차)	(16.45)	(4.27)	(3.66)	(4.02)	(4.42)	(3.60)	(4.46)	(25.12)	(12.06)
왜도	0.92	1.20	0.84	1.03	0.49	2.19	0.77	-0.25	-0.28
첨도	-0.24	0.84	-0.24	0.40	-0.68	4.18	2.01	-0.55	-0.26

주. *** $p < .001$

맷값이 각각 3과 8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West et al., 1995).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잠재변인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구성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하였다. CFI, TLI, RMSEA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0.9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며, RMSEA는 0.05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08 이하이면 양호하고, 0.1이하이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는 모두 위의 기준을 만족하여 CFI, TLI 지수는 양호하고, RMSEA 지수도 매우 좋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측정모형,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인 신체적 학대·신체적 방임·정서적 학대·정서적 방임·성학대와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학대 경험 총점	432.273	84	.000	.929	.943	.096
신체적 학대	311.729	84	.000	.951	.961	.078
신체적 방임	287.209	84	.000	.954	.963	.073
정서적 학대	260.302	84	.000	.961	.969	.068
정서적 방임	283.120	84	.000	.959	.968	.073
성학대	254.324	84	.000	.966	.973	.067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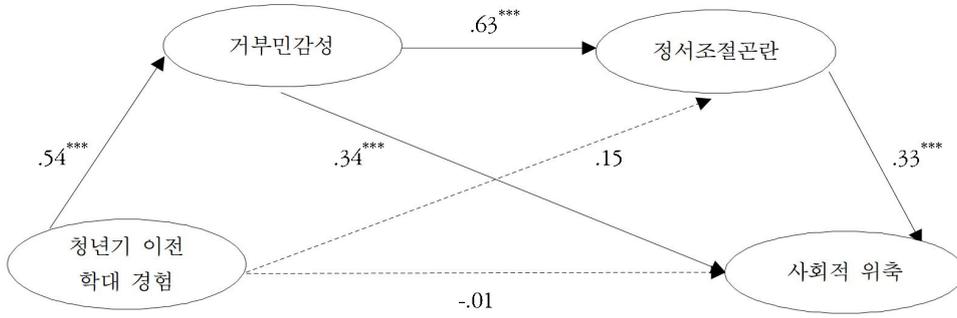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상기에 기술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 p<.001$). 거부민감성은 정서조절곤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3, p<.001$),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3, p<.001$). 그러

나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은 사회적 위축에는 직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인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 역시 모두 각각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거부민감성에서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조절곤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독립 변인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이 심할수록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고,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순차적으로 또 다른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으며,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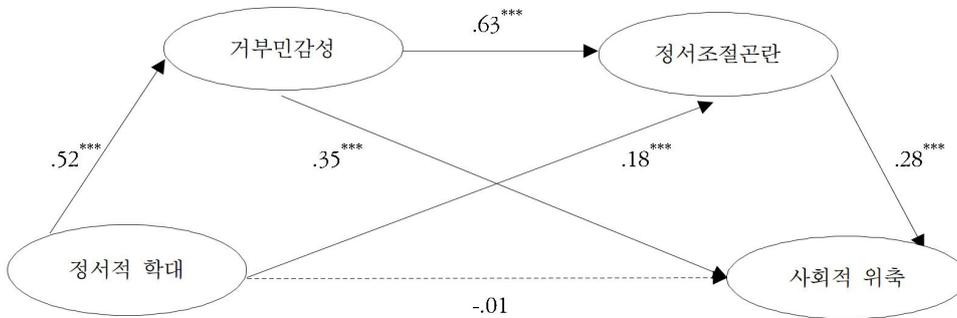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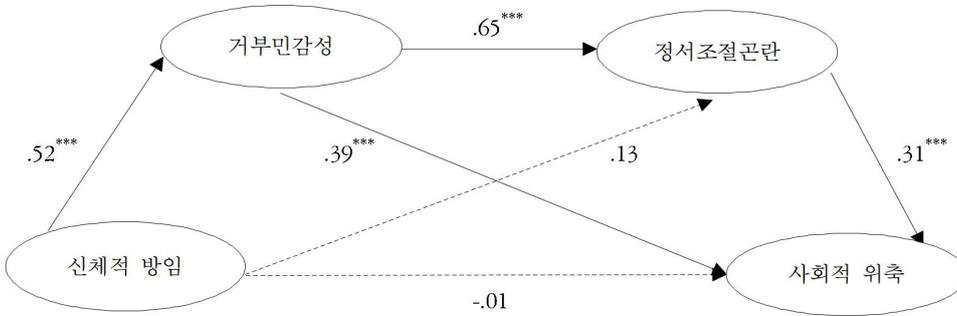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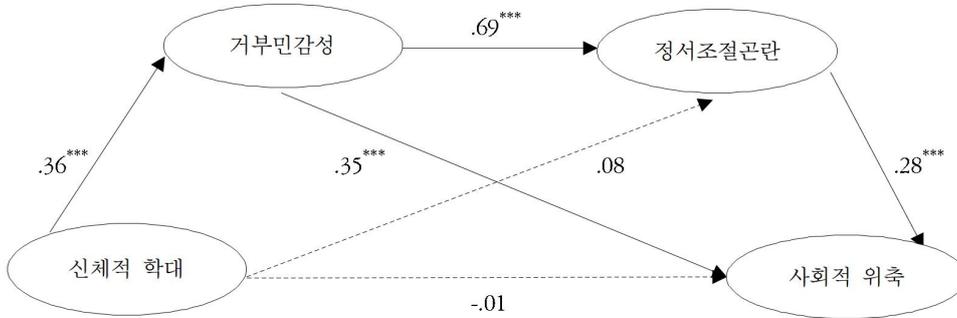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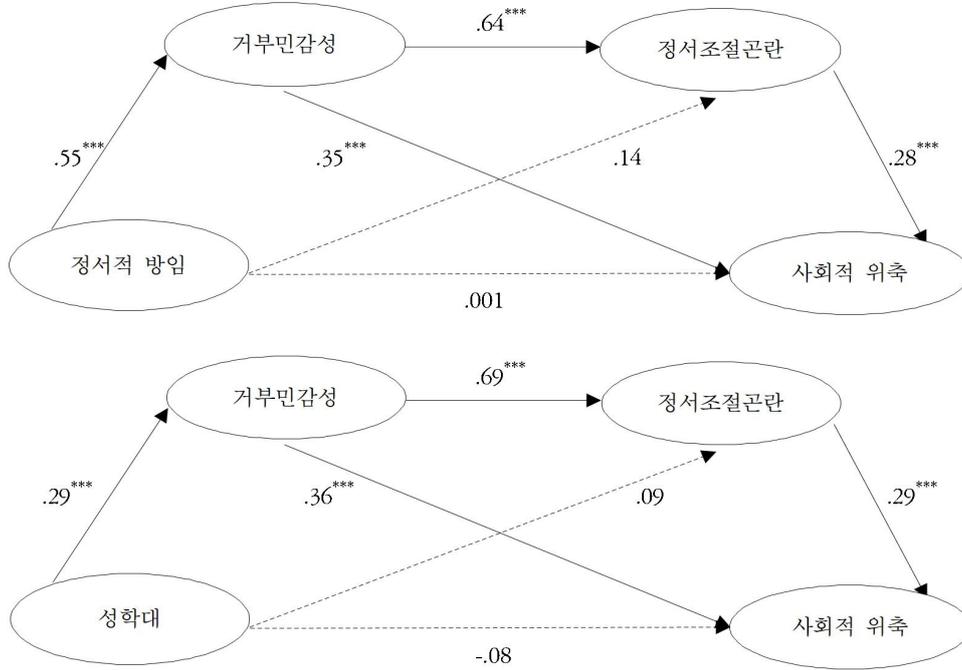
	χ^2	df	p	TLI	CFI	RMSEA
학대 경험 총점	432.273	84	.000	.929	.943	.096
신체적 학대	311.729	84	.000	.951	.961	.078
신체적 방임	287.209	84	.000	.954	.963	.073
정서적 학대	260.302	84	.000	.961	.969	.068
정서적 방임	283.120	84	.000	.959	.968	.073
성학대	254.324	84	.000	.966	.973	.067



주. *** $p < .001$

그림 2. 학대 총점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주. *** $p < .001$

그림 3. 학대 하위 유형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수록 종속 변인인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에서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4, p < .001$). 거부민감성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 또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 p < .001$). 즉 독립 변인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심할수록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거부민감성이 높아질수록 종속 변인인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에서 정서조절 곤란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학대에서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에서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만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p < .001$). 아울러 정서조절곤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 p < .001$). 즉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심해지고,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 정서

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 신뢰구간을 95%로 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순차매개모형은 95% 신뢰구간에서 .009-.027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Estimate(추정값)로 확인할 때 0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정(+)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어 그 영향력을 유의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김성은 등, 2018).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순차 매개모형 또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사회적 위축 간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20-.053의 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에서 거부민감성을 거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매개모형 역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사회적 위축 간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10-.073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심리적 기제와 대학생의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담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순차하여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이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

미한다.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인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 거부민감성이 형성되고, 이후의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는 예기 불안을 가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거부를 지각할 때 자기비난, 타인비난, 분노,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조절하거나 수용하지 못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윤, 2020). 거부민감성이 높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수용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되고, 이것은 거부를 지각한 이후에는 정서적 철회, 의기소침 등을 통하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Romero-Canyas et al., 2010). 이렇게 항상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부 상황에서 인지적 공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잘못 표상하여 상대방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강은영, 이희경, 2014). 즉 거부민감성이 높게 되면 인지적으로 상황의 전체 맥락을 읽고 상대의 의도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인식하는 수준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이희경, 2014). 이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에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자기의 경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과극화, 자기 비난, 타인 비난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되어 불안과 분노,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나경, 양난미, 2016; Garnefski et al., 2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 사고, 회피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우울, 대인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봉착하게 된다(Garnefski & Kraaij, 2007).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

황에서 사회적 단서를 적응적으로 해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대인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지만,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과극적 사고로 대처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위축되고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김민정, 2010; 김혜원, 오인수, 2016; Gorgi et al., 2019). 그러므로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사회적 위축을 호소할 때, 내담자의 내적 성향인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고, 아울러 거부민감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적응적 정서조절기술 프로그램 진행시에 거부민감성을 완화시키는 인지훈련을 포함시키는 상담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이 직접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김윤지, 최가희, 2020). 성장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거부나 무시, 거절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 거부민감성이 형성되고 거절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과거에 경험했던 거절감과 대처방식이 활성화되어 상황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

게 되어 철수, 회피, 공격 등의 부적응 행동 등을 야기하게 된다(하수홍, 장문선, 2013).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기 개념과 자기가치를 확립하며 성장하는데, 주양육자로부터 학대 등을 경험하고 이것이 축적되다 보면 주양육자가 자신을 수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좌절되어 거부민감성을 내재화하며 성장하게 된다(유고은, 방희정, 2011; 조정은, 이자영, 2022; Natarajan et al., 2011).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기가치감과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게 되어, 타인에게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형성하게 되므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회피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류혜라, 박기환, 2014; Ayduk et al., 2000; Kross et al., 2007). 또한 거부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와 거부로 쉽게 지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망, 분노, 낙담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쉽다(홍상황, 이은주, 2014). 거부에 대한 높은 사회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므로, 거부당할 상황을 피하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거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 Nesdale, 2012).

셋째, 정서조절곤란이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정신병리에 이르기까지 유의한 경로를 형성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김은정, 김진숙, 2020).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능력 중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자각하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조절 능력은 정서적인 자극 상황에서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서정, 2004). 이러한 정서 표현과 정서조절은 양육자의 민감한 피드백이 오가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방치되면서 정서적 학대를 당하게 되면 양육자와 애착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백승화, 박경, 2010; Paivio & Laurent, 2001). 특히 학대 환경에서 부모의 불합리한 정서조절기술은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링을 보여줌으로서 자녀가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데 방해 작용을 한다(Morris et al., 2007).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위협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어 또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백승화, 박경, 2010; Goldsmith & Freyd, 2005).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 표현을 계속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성인기의 만성적인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et al., 2003). 정서조절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Emmons & Colby, 1995). 이렇게 정서조절 기능의 손상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력 결핍 등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이충권, 양혜린, 2015). 정서 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유연하지 못하여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위축, 냉담, 비주장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며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권진희, 2011; Gottman & Mettetal, 1986).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의 하위 유형 중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학대는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체적 학대 경험과 대인관계와의 사이에서 정서조절의 하위 유형인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이 조절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와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학대 등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김순애, 2016; 손영지, 이승연, 2022). 아동기의 정서적인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성인기의 정서조절능력이 낮다는 연구는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학대의 하위 유형인 신체적 학대, 방임, 성학대와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구훈정 등, 2014; 박원주, 2019). 특히 아동기 성학대 피해를 겪은 경우는 낮은 자존감, 고립, 대인기피, 죄의식, 두려움, 증오 등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영옥 등, 2007). 방임의 경우에도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호작용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가 있다(백승화, 박경, 2010). 이런 선행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

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만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높은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더 많이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Gross & Keller, 1992). 어떤 종류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만 유의미하게 심리적 증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것은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심리적 증상을 강하게 예언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pertus et al., 2003).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모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학대에 관련되지만, 정서적 학대는 주로 언어폭력, 비하, 모욕 등을 의미하고,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정서적 무반응, 회피나 정서적 돌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Egeland, 2009).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충동통제곤란,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과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정서적 방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명료성 부족 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김진숙, 2020).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여러 영역 중에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부정적 감정, 충동, 비합리적이고 격렬한 감정 등을 회피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통해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서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병행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 이전 학대 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유사한 연구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모두 존재하였다(고나래, 2008; 박주영, 김용수, 2021; 석애란, 김영근, 2018; 성정옥, 2021). 이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성인기에 이르러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오히려 타인에게 받기를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자신이 타인에게 먼저 베풀어 줌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이태영, 심혜숙, 2011).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성장기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문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권경인, 정미정, 2017; 권민혜 등, 2020; 김윤지, 최가희, 2020; 김은정, 김진숙, 2020; 박주영, 김용수, 2021; 석애란, 김영근, 2018; Handley et al., 2021; Ross et al., 2019). 그러나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과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20년 아동 학대사례 유형 총 30,905건 중 정서적 학대 28.3%, 신체적 학대 12.3%, 성학대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복지대가 48.3%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학대의 유형별

로 연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이외에도 신체적 학대, 성학대, 방임이 대인관계 문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현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학대와 같은 외적인 경험이 개인의 내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회적 위축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청년기 이전에 학대를 경험하게 될 경우 학대 당시에는 그 심각성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은폐 경향,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보다 적절한 적극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인 학대보다 상대적으로 개입이 더 용이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직접 사회적 증진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부민감성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정서조절이 곤란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이 된다면 거부민감성을 완화시키고 적응적인 정서조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역시 중요하다.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당해도 나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내가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해도 괜찮다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절하기 훈련, 내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훈련을 통해 거부민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며, 행동수정 훈련을 통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

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이전 학대는 과거의 경험을 회고적인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연구 참여자가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축소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인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하여 구조화된 면담, 직접적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부민감성 척도(RSQ)는 정식으로 번안되어 있지 않아 척도를 개발한 해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거부민감성의 구성개념이 번안된 척도의 구성개념과 같은지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이 척도는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와 국내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항목의 점수를 곱하여 나온 값은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과대평가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점수의 편차가 합연산보다 커지기 때문에 문항의 응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박명진, 양난미, 2017). 향후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박명진, 양난미, 2017)에서 제작된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입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 인지왜곡, 실패공포, 자동사고 등 다양한 인지·정서적 변인들을 구성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나 실패공포는 정서적 측면에, 인지왜곡과 자동사고는 인지적 측면과 가까운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곤란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의 변인들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변인들로 검증을 한다면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경로에서의 매개효과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 조현주 (2021). 애착의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두려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1), 71-98.
- 강은영, 이희경 (2014).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0, 7-31.
- 강하은, 조영아 (2017).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618-627.
- 권경인, 정미정 (2017).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 손상과 부적응적 분노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389-407.
- 권민혜, 이지연, 김혜원 (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리더*, 10(4), 163-193.
- 권세경, 이은정 (2016).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과 수용의 범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347-362.
- 권진희 (2011).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4(1), 37-49.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민정 (2010).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중훈, 김과현 (2018). 한번에 통과하는 논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 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주).
- 김순애 (2016).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27-348.
-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 김윤지, 최가희 (2020).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1(2), 1-19.
- 김혜원, 오인수 (2016).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1), 151-171.
- 김혜윤 (2020). 아동기 외상이 성인 초기 관계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 이주영 (2021). 아동기 외상 유형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75-96.
- 박원주 (2019). 아동기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255-264.
- 박주영, 김용수 (202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대학생의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7(1), 309-330.
- 백승화, 박 경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정서 학대 및 방임 아동의 정서표현 및 조절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0(2), 109-135.

- 석애란, 김영근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2), 305-329.
- 성정옥 (2021). 아동기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자기체계손상의 순차 매개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지, 이승연 (2022).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2), 181-198.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보건복지부.
- 안동현, 이정숙, 권자영 (1992).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73-83.
- 안동현 (2002). 아동학대의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12), 3-16.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오현숙 (2003).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 치료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11), 157-19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윤미설, 이동형 (2017).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8(3), 463-487.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영옥, 최외선, 김갑숙 (2007). 아동기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전반적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4(1), 103-130.

- 이충권, 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 방임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6(4), 1015-1038.
- 조정은, 이자영 (2022).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 13(1), 215-230.
- 최나윤, 이영호 (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2), 137-166.
- 최은선, 권혜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4), 123-132.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관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하지연 (2018). 정서학대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친밀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2000).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수행방안모색 -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동광*, 97, 5-51.
- 홍상황,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역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9-69.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rnstein, D., & Fink, L. (1998). *Manual for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New York: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12(3), 331-341.
- Christ, C., De Waal, M. M., Dekker, J. J., van Kuijk, I., Van Schaik, D. J., Kikkert, M. J., Messman-Moore, T. L. (2019). Linking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PLoS One*, 14(2), 1-18.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geland, B. (2009). Taking stock: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33, 22-26.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Garnefski, N., &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features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41-14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oldsmith, R. E., & Freyd, J. J. (2005). Awareness for emotion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orgi, K., Dolatshahi, B., Shakiba, S., & Kamizi, S.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forms of maltreatment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ractice in Clinical Psychology*, 7(4), 255-262.
- Gottman, J. M., & Mettetal, G. (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oss, A. B., &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 on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18, 171-185.
- Handley, E. D., Russotti, J., Warmingham, J. M., Rogosch, F. A., Todd Manly, J., & Cicchetti, D. (2021). Patterns of child maltreat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nflictual emergi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n examination of mechanisms and gender moderation. *Child Maltreatment*, 26(4), 387-397.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Herman, J.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London: Hachette UK.
- Impett, E. A., Gable,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Katz, S. J., Conway, C. C., Hammen, C. L., Brennan, P. A., & Najman, J. M. (2011). Childhoo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227-1238.
- Keenan, K., Shaw, D., Delliquadri, E., Giovannelli, J., & Walsh, B. (1998). Evidence for the continuity of early problem behaviors: Application of a development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6), 441-452.
-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 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 Kross, E., Egner, T., Ochsner, K., Hirsch, J., & Downey, G. (2007). Neural dynamic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6), 945-956.
- Lewis, D. O. (1992). From abuse to violence: Psyc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3), 383-391.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essel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Natarajan, G., Somasundaram, C. P., & Sundaram, K. R. (2011).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Studies*, 56(4), 378-386.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 Paivio, S. C., & Laurent, C. (2001).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processing memories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2), 213-226.
- Polansky, N. (1987). *Damaged par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mero 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 - 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Ross, N. D., Kaminski, P. L., & Herrington, R. (2019). From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to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The roles of self-compassion and shame. *Child Abuse & Neglect*, 92, 32-42.
- Rubin, K. H., & Coplan, R. J. (2007).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Detroit: Wayne State

- University Press.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groi, S. (1982).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and Neglect*, 27, 1247-1258.
- Steele, B. (1980). *Psychodynamic factors in child ab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der Kolk, Bessel A., & Courtois, C. A. (2005).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5-388.
- Watson, J., & Nesdale, D.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New York: Guilford.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원고접수일 : 2023. 0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5. 15

게재결정일 : 2023. 06. 12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Abuse in Early Young Adulthood on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Won-Hee Moon

Su-Gyun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types of abuse experienced in early young adulthood,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dysregulat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young adulthood abuse and social withdrawal in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449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rejection sensitiv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young adulthood abuse and social withdrawal. Second, emotion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 subtype of early young adulthood abuse, and social withdrawal. Third, the fully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young adulthood abuse and social withdrawal. Fourth, early young adulthood abuse did not directly affect soci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arly young adulthood abuse,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dysregulation, social withdrawal